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 위 논 문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인체의 형상을 결합한 도자 조형 연구

- 제주도의 돌 문화를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 예 과

이 호 철

2016년 2월

HONGIK UNIVERSITY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인체의 형상을 결합한 도자 조형 연구

- 제주도의 돌 문화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교수 원 경 환

2016년 1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 예 과

이 호 철

HONGIK UNIVERSITY

이호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이 인 진 (인)

심 사 위 원 원 경 환 (인)

심 사 위 원 이 영 미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국문초록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인간이 표현하는 예술의 형식 또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예술의 상징적 표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물상(物象)의 상징적 이미지의 형성체계를 문화적 배경에서 찾고자 한다.

예술적 표현형식의 하나인 '상징적 표현'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內在的) 의미, 즉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하게 된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예술은 상징이며 작가가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예술 작품에서의 상징성은 작품의 의미구조와 형식 속에서 작가의 자의적인 의도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제주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돌'을 소재로 하는 연구자의 작품 형성 배경에는 제주도의 돌 문화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다년간에 걸쳐 본 연구자의 지역적 배경이 되었던 제주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다.

제주 돌 문화는 육지와는 다른 상징적 이미지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용암이 굳어 돌로 뒤덮히고 고립된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역사와 향토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돌'은 척박하고 무거운 현실의 반영이자 거친 바람을 막고 생활 전반에 걸친 생존의 도구인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현실의 삶을 대변한다.

돌과 싸우며 돌을 품고 돌과 하나 되어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의 이면(裏面)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인간의 주체성과 생존을 넘어 실존(實存)에 대

HONGIK UNIVERSITY

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자에게 인간에 대한 탐구와 표현의 동기가 되었다.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측면으로의 주체적(主體的) 인간을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돌'과 함께 '인체'라는 소재가 상징적으로 차용되는 배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돌'의 다의적(多意的) 의미와 상징성을 제주 화산암과 제주의 문화를 통해 고찰하여,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돌'과 '인체'가 재구성되는 작품의 상징구조를 설명하고 표현형식의 당위성과 더불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외적 표현 형식과 내적 표현 동기와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살피고, 작품의 구성에서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재창조되는 상징적 이미지의 형식을 체계화함으로서 새로운 심상표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서의 상징적 표현이 가지는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의 형성배경을 고찰하였다. 인류의 역사적 문화 속에서 형성된 돌의 보편적인 상징성과 더불어 제주도의 돌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측면과 그것을 표현하는 심상표현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자의 표현 동기를 서술하였다. 또한 작품의 주요 소재를 '돌'과 '인체'로 분류하여, 각 소재에 따른 선례 작품 연구와 함께 작품 해설을 통해 연구자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예술적 의도에 의해 재구성되는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 구조를 체계화한다.

HONGIK UNIVERSITY

본 연구자의 작품은 예술의 상징적 표현 행위를 통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정신을 조형화하고 있다. 상징적 표현은 그 내재적인 의미가 중요한 소통의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그 표현과 소통의 중요한 형식이 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그 형성배경을 제주(濟州)의 돌 문화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해 '돌'과 인체의 형상을 결합한 상징구조의 의미발생부터 형성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작품에서 다의적인 의미로 재창조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HONGIK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2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Ⅱ. 작품의 형성 배경 ····· 3

1. 예술의 상징적 표현 ····· 3

2. 돌의 상징적 이미지 ····· 5

1) 인류 역사 속의 돌 문화 ····· 6

2) 예술에 차용된 돌의 의미와 상징성 ····· 7

3.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 ····· 9

1) 제주 돌 문화의 형성 배경 ····· 10

2) 제주 문화 속의 돌의 의미와 상징성 ····· 13

Ⅲ. 작품 분석 ····· 16

1. 작품의 표현 동기 ····· 16

2. 작품의 상징 체계 ····· 18

1) 돌의 상징적 표현 ····· 19

2) 인체의 상징적 표현 ····· 23

3. 작품 설명 ····· 26

HONGIK UNIVERSITY

Ⅳ. 결　론 ····· 42

참고문헌 ····· 44
그림목록 ····· 45
Abstract ····· 46

HONGIK UNIVERSITY

Ⅰ. 서 론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의 역사는 길고도 방대하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신활동이다. 그 만큼 수많은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예술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표현 동기가 된다.

제주의 '돌'과 인체의 형상을 결합한 본 연구자의 작품은 화산섬이라는 돌로 뒤덮히고 고립된 척박한 환경에서 투쟁하듯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단순히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주체적(主體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고통과 생물학적 죽음을 전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유한한 생존에 대한 회의감에서 출발한 연구자의 내적(內的)사유가 인간 정신의 실존(實存)과 주체적 의지에 대한 관점으로 전개된 결과이다.

현실과 이상, 물질과 정신, 생존과 실존에 대한 주제를 반영하는 본 작품은 그 상징적인 소재로서 '돌'과 '인체'가 차용되어 재구성된다. 그 바탕에는 다년간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제주도의 문화적 상징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돌 문화는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 및 내용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연구자의 내적 심상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일련(一連)의 조형언어로 치환(置換)되어 도출된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에 대입하여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본질적인 측면에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통을 위한 표현 형식으로서, 작품의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방향성을 가진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 관념에 의해 도출된 일련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HONGIK UNIVERSITY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예술의 형식 중 상징적 표현의 형성배경을 문화적 환경을 기조(基調)로 고찰하여,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차용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발생부터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돌'과 인체의 형상이 결합하여 재구성되는 조형의 표현 동기를 밝히고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외적 표현 형식과 내적 표현 동기와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살피고, 표현형식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구성에서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재창조되는 상징적 이미지의 형식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심상표현의 계기를 마련하여 예술적 소통의 상징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작품의 중요한 소재인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인체'의 표현형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이론적 배경으로 상징적 표현과 심상 표현을 고찰함에 있어, 작품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제주도의 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된 각종 서적과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등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소재에 따른 관련 선례 작가를 연구하여 작품 해설과 함께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HONGIK UNIVERSITY

Ⅱ. 작품의 형성배경

인간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면의 관념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소통한다. 예술에 있어서 주관적인 표현의 동기뿐만 아니라 미적형식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표현' 뒤에 '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소통수단으로서 체계화된 형식을 우리는 포괄적 의미로 언어라 부르며,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외에도 표현방법에 따라 몸짓언어, 시각언어, 조형언어 등 다양하다. 이러한 언어들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동일한 행동이 지역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자국(自國)의 언어를 문화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듯 사물에 대한 관념이나 느낌도 공통된 사회적 경험과 교육, 관습에 의한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술의 표현에서 사물이 가지는 관념이나 느낌, 상징적 이미지는 시각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물상(物像)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는 내면에서 형성되는 추상적 관념이나 심상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 형식의 중요한 개념이다.

본장에서는 예술의 형식 중 상징적 표현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본 연구 작품의 중요한 소재인 '돌'의 상징적 이미지의 형성배경을 문화적 환경을 통해 고찰한다.

1. 예술의 상징적 표현

예술에 있어서 '표현'이란 내면에 형성된 어떤 관념이나 심상을 일련의 형식을 통해 외면화(外面化)하는 과정이다.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인

HONGIK UNIVERSITY

‘상징적 표현’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內在的) 의미, 즉 상징성을 차용하게 된다.

상징은 사물을 지시하거나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1]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2]은 예술과 상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술은 상징이며 작가가 경험한 것, 지각한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무의식에 의한 것이다.” 즉, 인간 내면에는 공통된 무의식적인 상징이 존재하며, 이는 예술의 상징적 표현이 하나의 미적형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러한 공통된 무의식적인 상징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이에 대해 “개개의 문화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기호를 제시하며, 이는 역사나 관습, 교육에서 유래하며 모순적일 정도로 다양하다.”[3]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상징에 함축된 의미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흐름에 따라 다양해지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확장되거나 분리되기도 한다. 어떠한 대상이 가지는 상징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의적(多意的)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상징이 은유와 다른 점은 원(原)관념과 그것을 표현하기위해 차용된 보조(補助)관념 사이에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근거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징적 표현이 소통 가능한 것은 시간에 의해 축적된 사물에 대한 정서적 느낌이나 의미들이 문화적 흐름에 의해 어느 정도 형식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작품에서의 상징성은 작품의 의미구조와 형식 속에서 작가의 자의적(恣意的)인 의도와 주관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

---

1) 수잔 K.랭거(S.K.LANGER) 『예술이란무엇인가』, 이승훈 역 , 서울고려원 , 1982 , p.112

2) Carl Gustav Jung (1875-1961)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이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구분하고, 모든 개인의 무의식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를 집단무의식 이라고 하였다.

3) Roger Caillois(1913-1978) 『일반미학』 이경자 옮김 , 동문선 , 1999 , p39

HONGIK UNIVERSITY

기도 한다. 이에 작품 속에서 사물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의 구조와 형성배경을 생각해야한다. 이 때, 관객들은 이해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심상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위한 소재에 대한 연구는 작품 속에서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그 연구 범위에는 시대와 문화에 의해 형성된 상징성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예술적 의도로 형성된 상징체계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돌'과 제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작품에서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 배경과 체계를 밝힌다.

2. 돌의 상징적 이미지

자연은 예로부터 예술에 있어 중요한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그 중 '돌'은 암석 또는 광물의 총칭으로, 예술 뿐 만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소재 중 하나이다.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로부터 인류의 문화는 돌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의 역사 속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돌문화가 존재해왔고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탄생되는 예술의 영역에서 '돌'이라는 소재의 상징적 배경도 그만큼 유구함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만큼 '돌'이 가지는 내재적 의미와 상징성은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하고, 그 의미는 공통된 맥락을 가지면서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차이를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돌에 의해 형성된 물질적, 정신적 문화의 유산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예술문화 영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돌의 내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찰한다.

HONGIK UNIVERSITY

1)인류 역사 속의 돌 문화

석기(石器)문화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앞선 문명이자 가장 오랜 기간을 형성한 선사시대의 산물이다. 돌을 재료로 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다. 그만큼 돌은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이 소재로서, 그 견고한 물리적 특성과 가공의 용이함은 물질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충분했다.

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와 철기시대를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재료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에도 '돌'은 여전히 생활도구 및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의 영역에서까지 재료적인 측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형식과 가공기술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기 차이점을 보이며 발전되어 왔는데, 그것은 암석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지역적 분포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주 화산암의 암석학적 특성 또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요인이다. 거의 모든 암석이 그 종류와 특성에 따라 건축 및 실생활에 이용되지만, 특히 화강암과 대리석은 조각 미술품의 원자재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리스는 대리석의 산지로서 예로부터 그리스 조각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질 좋은 화강암이 분포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화강암을 이용한 불교 석조(石造)미술이 발달하였다.

자연석 혹은 가공된 돌을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구조물 형식의 거석문화(巨石文化)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잉카의 마추픽추, 영국의 스톤헨지 등 세계 각지에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거석의 건조(建造) 목적은 제의(祭儀)나 종교적, 사회적 목적에서 축조된 것과 무덤이나 기념물의 목적으로 건조된 것이 있다. 이는 거석물(巨石物)을 축조하게 된 배경과 기능적인 면으로, 지역에 따라 거석의 규모나 구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HONGIK UNIVERSITY

다. 이 현상은 각 지역의 사회적인 전통과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4] 이렇듯 돌을 이용한 유형의 유산 속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함축되어 있다.

2)예술에 나타난 돌의 의미와 상징성

돌은 인류문명과 유구한 시간 속에서 밀접한 소재였던 만큼 재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표현 대상으로서 상징적으로 많은 예술작품에서 차용되어 왔다. 그 상징성들은 돌이 가진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되기도 하며, 작품의 구조 속에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새롭게 부여되기도 한다. 돌이 가진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돌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영원성과 생명력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고대로부터 돌을 숭배하고 종교적 의미로 이용해왔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돌이 생명을 지니고 그 속에 령(靈)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신앙은 예로부터 널리 퍼져 있다. 돌이 가지는 견고하고 강인한 이미지와 함께 인간에 비해 영원에 가까운 존재성이 신성시 된 것이다.[5] 이러한 돌이 가지는 불변성(不變性)과 부동성(不動性)을 배경으로, 예로부터 범세계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돌 자체를 숭배한 것 보다는 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들이 종교적 의미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잉카의 인디오들은 돌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했으며, 제주도의 민간신앙에서도 돌은 신앙의 대상이자 매개(媒介)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대자연의 상서로운 존재로서 상징적 의미와 영원불멸의 상징성을 가진 돌은

4) [네이버 지식백과] 거석문화의 이해과 개념 , 문화콘텐츠닷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45118&cid=49373&categoryId=49373
5) 박정근 외 『돌의 美의 미를 찾아서』, 서울도서출판 다른세상 , 2000 , p.55

HONGIK UNIVERSITY

옛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그 오묘함과 경이로움을 담은 <괴석도(怪石圖)>는 문인화(文人畵)의 한 화제(畵題)로,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그려진 기이한 바위를 그린 그림이다.(그림1)

(그림 1)
강세황 <괴석도>, 1712
지본수묵(紙本水墨)

또한, 옛 사람들은 십장생(十長生)[6]을 그림이나 시문(詩文), 조각 등에 많이 표현해 왔는데, 이는 돌이 가진 영원성의 상징적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기독교의 '신약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수를 품은 돌로 표현하기도 했다. (고린도전서 10:4)[7] 돌이 가진 영원과 생명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돌의 영원성과 생명력의 상징적 이미지는 현재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동기와 소재가 되었다.

돌은 그 중력에 의한 물리적 무게로 인해 무거운 짐이나 고난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8]의 소설 '시지프스의 신화'[9]에서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인 '시지프스(Sisyphos)'는 산비탈에서 무게에 의해 반복적으로 굴러 떨어지는 큰 돌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이는 돌의 질량이 크기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

6) 장생, 불사를 표상한 10가지 물상(物象) -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구름 ·불로초 · 거북 ·학 ·사슴

7) '다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8) Albert Camus (1913-1960)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9)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시지프스의 신화』, 1942

HONGIK UNIVERSITY

조각가 로댕은 <돌을 지고 있는 여인상>[10]이라는 작품으로, 돌의 무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는 운명에 대한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2)

이처럼 돌이 가진 다의적인 상징성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구조 속에서 그 표현과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차용된다.

(그림 2) 오귀스트 로댕,
<돌을 지고 있는 여인상>,
1880-1881, 파리로댕박물관 소장

3. 제주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

문화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물질문화는 그 문화가 형성되는 자연적 환경에 의한 물리적 소재에 의해 그 형식이 대부분 이루어지며, 그 유형의 문화의 형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서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문화는 다시 물질문화의 발전형태와 방향에 관여한다. 그 둘은 독립된 다른 영역을 포함하면서도, 따로 구별하여 그 근원과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다. 이에 돌이라는 소재에서 파생되는 문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배경을 함께 고찰해야한다.

10) 프랑스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 (Auguste Rodin, 1840-1917) 의 작품 중 <지옥의 문>의 일부분.

HONGIK UNIVERSITY

그리고 인간의 정신문화는 자연환경과 풍토(風土)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시대 상황에 의한 민족적, 향토적 정서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주의 돌 문화의 형성배경을 고찰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지리와 풍토에 의한 '多石'의 유형(有形)문화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존재하는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화의 특성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 돌 문화 속에 존재하는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연구함으로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 차용되는 돌의 의미와 상징성을 서술한다.

1)제주 돌 문화의 형성배경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독특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가진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과 바람의 섬으로 불리울 만큼 뿌리 깊은 돌의 문화가 형성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 지리와 풍토, 역사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서 제주 고유의 돌문화의 형성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용암이 약 79회 이상의 연속적인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방패를 엎어놓은 형상의 순상화산체(楯狀火山體)로서, 현무암류가 제주도의 전면적의 95%이상 분포하고 있다.[11] 섬 중앙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 산록에는 368개의 소화산체인 오름(기생화산)이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최고봉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축73km 와 남북축31km의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 화산암의 주를 이루는 현무암은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급속히 냉각, 굳어지면서 형성된 암반이다.

---

11) 엄관용, 『제주도 화산암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2002 , p.7

HONGIK UNIVERSITY

하나의 거대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자연은 여타 지역과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화산지대로서 돌이 많은 풍토적 특성은 제주의 물질문화에 특정 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는 조금만 파고들어가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암반이 절리층(節理層)이 이루고 있으며, 지표는 화산회토(火山灰土)로서 돌이 많아 제주의 돌 문화의 형성에 큰 배경이 되었다.

(그림 3)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신당(神堂) ,
<생개납 돈짓당>

"돌로 바람을 막고 돌을 쌓아 집을 만들고 생활도구와 놀이기구를 만든다. 포구(浦口)를 만들어 파도를 막고, 신당(神堂)을 만들어 의례(儀禮)를 행한다. 돌은 신상(神像)도 되고 경계표도 되고 집도 되며 길도 된다"[12] 라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 '돌'이 빠지지 않을 만큼, 생활 곳곳에서 삶과 뗄 수 없는 도구 이상의 무엇으로 존재해 왔다. (그림 3,4,5)

(그림 4) 제주의 초가(草家)와 돌담

(그림 5)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옛 포구

그러나 제주인에게 '돌'이라는 존재는 항상 친숙하고 유익한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제주도를 구성하는 암석의 90% 이상은 검은빛의 다공질(多孔

12)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 2003 , p.16

HONGIK UNIVERSITY

質) 현무암으로서, 제주인의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였다. 돌과 화산재로 이루어진 제주의 토질(土質)은 침수(浸水)성이 강해, 농사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한 환경을 만드는 주요한 요소였다. 비가 와도 빗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대부분 하천은 건천(乾川)을 이루고, 밭작물을 주로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 김상헌[13]은 '남사록'[14]의 '풍물편'에 "이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이 부박(浮薄)하고 건조하다."고 제주의 열악한 토지 환경을 기술(記述)하고 있다. 땅에는 돌이 많아 흙의 깊이가 얕고, 토양의 입자도 가벼워 농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삼다도(三多島)'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는 돌과 바람이 많은 풍토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의 기후는 평년 기온이 14.7도의 따뜻한 곳으로 가장 추운 날이라 하여도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없으나, 연평균 풍속이 4.8m/s나 되는 바람 많은 기후는 농작물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었다.[15]

농업이 생산과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는 과거사회에서 농사에 불리한 제주의 풍토적 특성은 제주인의 힘겹고 고된 삶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多石'과 '多風'의 불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돌을 이용해 바람을 막는 밭담을 쌓고 도구를 만들며, 경작을 이어온 제주의 역사는 인간의 치열한 생존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풍토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상호작용하여 구석기시대로부터 선사시대를 걸쳐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상황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형성했다. 특히, 화산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여건은 문화의 핵심요소로서 제주의 문화가 그 고유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13) 김상헌 (淸陰 金尙憲, 1570-1652)
14)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오랑캐에게 굴복하기를 끝끝내 반대한 청음 김상헌 선생이 32세 때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기록한 기행문이다.
15) 현충식 외,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1993 , p.30

HONGIK UNIVERSITY

제주도는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문헌에도 기록이 남겨져있어 선사문화(先史文化)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선사시대를 걸친 제주의 역사는 그 지리적 여건과 특성상 독립된 국가로서 웅대한 왕국이나 문화국가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의 역사전개 과정에서 제주도는 백제와 신라와의 조공(租貢)과 섬김, 왜구의 침탈, 1세기에 걸친 몽고의 지배, 정객(政客)들의 유배지로 이용되는 등 끊임없이 수난을 당했던 굴곡심한 역사가 존재한다.[16] 본토와 떨어져 고립된 섬의 지리적 위치는 문화적으로 전파와 발전과정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었으나, 그 고유의 향토적 문화성이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제주의 돌 문화는 단순히 돌이라는 소재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적 특성 외에, 고유의 민족성과 향토적 정서, 외난(外難)에 대항했던 배타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담긴 무형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2) 제주 문화 속의 돌의 의미와 상징성

앞서 고찰한 지리와 풍토,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제주의 돌 문화가 여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토(本土)와 떨어진 지리적 위치와 농업생산에 불리한 풍토, 다난(多難)한 역사적 상황들은 제주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에 작용하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돌'이 존재하고 있다.

---

16) 현충식 외,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1993 , p.29

HONGIK UNIVERSITY

‘돌을 다루고 돌과 싸우면서 돌에 의지하여 그것과 하나 되어 이룩해낸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주의 돌 문화는 돌이 가진 상징성이 제주의 문화를 대변할 만큼 크고 다양함을 알려준다.

화산암과 화산재로 뒤덮힌 대지는 인간의 삶에는 불리한 불모(不毛)의 환경이었다. 제주의 문화에서 ‘돌’이라는 화산암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소재로서, 척박한 환경과 현실을 상징한다. 또한, 고립된 섬의 이미지로서 독립된 공간이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며, 슬기롭게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돌 틈에도 생물은 끊임없이 생태계를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반대로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환경을 제공하며, ‘돌’들은 생활 전반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생존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생존의 방편으로 이용한 것이다.

밭의 경작 과정에서 나오는 돌들을 이용해 밭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경계석으로 삼은 제주 사람들의 지혜는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차갑고 무거운 현실을 상징하는 제주의 ‘돌’은 역설적이게도 생존의 도구로서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자연과 싸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주의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제주에는 수 많은 토속신앙이 존재하며, 육지로부터 전파된 유교나 불교와 결합하여 독특한 민간신앙이 탄생되어 전래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돌은 그 재료적인 측면으로 종교의 의례를 행하는 도구로서도 이용되었지만, 돌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결합되어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HONGIK UNIVERSITY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돌하루방'[17]과 '방사탑[18]', 그리고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한 '산담[19]'과 '동자석[20]'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대처하는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21] (그림 6, 7)

(그림 6) 용수리 방사탑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8호

(그림 7) 산담과 동자석
남원읍 의귀리의 김만일 묘역

이것은 돌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떠나, 돌 자체가 지닌 자연물로서의 상징성과 종교적의미가 결합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이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 '돌'은 제주인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하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다. 즉,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는 제주의 삶을 반영하는 수많은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제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다의적인 상징성들을 작품구조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형식으로 차용한다.

---

17) 육지의 장승과 같이 제주의 경계수호신의 역할을 하였던 석상
18) 제주도에서 마을 액운을 막으려고 세운 돌탑
19) 무덤 주위를 장방형으로 쌓은 돌담으로, 영혼의 영역을 구획 짓는 한편, 소나 말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
20) 동자석은 무덤 앞 좌. 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地神)의 역할을 하였다.
21) 김성은 , 『제주도 돌(石) 文化와 造形디자인에관한 硏究 :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2 , p.13

HONGIK UNIVERSITY

Ⅲ. 작품분석

본 장에서는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내적 표현 동기와 내용을 서술하고, 표현 형식으로 돌과 인체의 상징적 구조를 체계화 한다.

작품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상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예술적 표현의 동기가 된다. 그리고 형식은 표현의 수단이자 작품 속에서 자의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구자는 그 형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주 화산암의 상징성을 차용하고 있다.

앞서, 예술 표현 형식으로서 상징적 표현의 개념과 원리에 의거하여 제주의 돌 문화를 통해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형성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심상표현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자의 표현 동기를 서술한다. 또한 소재에 따른 선례연구를 통해 작품에서 돌과 함께 인체의 형상이 표현되는 형식을 분석하고 작품설명을 통해 구체화한다.

1. 작품의 표현 동기

심상(心象)이란 기억, 상상 또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으로 외부의 현상과 구별되는 마음속의 상(象)이다. 이것은 심상이 단순히 어떠한 대상의 형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외부의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자의 주관적 감각을 통해 재현된 개인의 고유한 관념임을 나타낸다. 이에 심상의 표현이란 내면의 관념이 외부 대상에 대입되는 것으로, '재현'과는 다른 '표현' 행위이자 예술적 창조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HONGIK UNIVERSITY

제주의 삶의 풍경 속, 사방으로 펼쳐진 돌과 그 위에 인간의 현존(現存)과 잔상들은 내면에 새로운 심상을 형성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넘어 사념(私念)이 깃든 또 다른 추상적인 이미지이다.

특히, 제주도라는 돌로 뒤덮히고 고립된 불모(不毛)의 화산섬에서, 오히려 그 돌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과 의지에 주목한다. 이는 고통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생물학적 죽음을 전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내적인 심상은 인간 정신의 실존과 주체적 의지에 대한 관점으로 재해석된다. 제주의 문화 속, '돌'과 '인간'의 관계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삶의 본질에 대한 주관적인 심상이다. 이러한 내면의 정신활동은 다시 돌과 인체라는 형상에 대입되어 외부로 재생된다. 즉, 내면의 심상표현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의 역사는 고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측면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유로부터 형성되는 내면의 심상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가의 역할은 대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작품의 내용적 배경에는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물질과 정신, 육체적 생존과 정신의 실존에 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강조하듯 연구자의 작품형성은 개인의 자각(自覺)적인 주체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각'이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이며, 의식하는 '주체'가 전제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René Descartes)[22]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의 주체적인 정신활동과 그 존재성을 밝

22) René Descartes (1596-1650)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생리학자

HONGIK UNIVERSITY

히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실존'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의지를 가진 개인 정신의 존재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현실세계에서 현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으로서의 인간을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구현(具現)한다. 상징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현존(現存)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23]

앞서 상징적 표현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고, 그 소재로서 '돌'과 '인체'를 차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의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돌'과 함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의 형상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주체성을 전제로 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상징적 표현을 통해 조형화한다. 예술적 표현 행위를 통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이면을 시각화함으로서 내면을 탐구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

2. 작품의 상징체계

'상징적 이미지'란 상징적 표현에 의해 구체화 되는 이미지를 말한다. 앞서 상징적 표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상징적 이미지는 작품의 구조 속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예술적 의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서술한 바 있다. 또한 본 작품의 내용이 인간의 내면과 정신활동, 그 주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돌'과 '인체'를 재구성한 상징적 표현은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그 이미지는 작품 구조 속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된다.

---

23) 강태희 외 , 『미술·진리·과학』, 재원미술총서 , 1996 , p.148

HONGIK UNIVERSITY

다음의 각 소재에 따른 작품 분석과 선례 작가 연구를 통해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요소와 함께 인체의 형상이 작품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되는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돌의 상징적 표현

제주의 돌을 작품의 소재로 차용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그 표현과 기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허민자[24] 작가의 작품들 중 제주 화산암을 소재로 하는 조형작품을 중심으로 표현형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로서 본 연구자가 차용하고 있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표현 형식을 서술하고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를 모색한다.

허민자 작가는 제주의 자연과 화산암의 조형적 특성 및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다양한 돌의 형상과 질감에서 비롯된 느낌을 기조(基調)로 그 안에 작가의 심상을 표현한다.

(그림 8) 허민자, <Two People> ,석기점토, 1996

(그림 9) 허민자,
<기쁨으로 찬미하세> ,조합토, 2009

24) 허민자(許敏子, 1944~)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제주대학교에 재직하며 제주(濟州) 도예의 1세대로서 제주도의 현대도예를 이끌어왔다. 현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제주도에서 도예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HONGIK UNIVERSITY

“점토만이 가질 수 있는 표현기법과 제주 고유의 재료적 특성을 살려 화산암을 조형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형상화함으로서, 돌의 섬인 제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라고 작가는 말하며, 제주의 흙을 기반으로 다양한 태토의 조합과 화산재와 화산송이(scoria)[25]를 이용한 유약 실험을 통해 돌의 표면 질감을 완성해나간다. 제주의 돌과 점토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토대로 한 소지와 유약, 그리고 제작기법들은 작가 고유의 작품세계를 차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점토의 특성이 비중이 큰 도예기법에서, 소지에 대한 연구 배경이 제주의 재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제주의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큰 당위성을 가지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본 연구자에게 제주 돌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더욱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만 연구자는 표현기법에서, 대부분 라쿠나 내화갑 등을 이용한 소성방법을 통해 화산암의 질감을 표현하거나 필요에 따라 제주 자연석을 직접 가공하여 작품에 결합함으로서 작품을 구성한다.

허민자의 작품에서 그 돌의 형태적 조형성은 제주 화산암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용암의 냉각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상절리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한 다양한 형태적 질감, 화산쇄설암(火山碎屑岩)의 독특한 형상들은 작가의 작품에 중요한 표현의 소재가 되어진다.

하지만 허민자의 작품이 제주 화산암의 조형적 특성만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돌이 엉겨 붙은 모습이나 다양한 화산암의 형상, 제주의 돌탑과 동자석 등을 통해 작가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내면의 또 다른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화해와 용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으며 나아가 작가의 종교적 세계가 결합되어 인간과 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

25) 화산암재(火山岩灰)의 일종으로, 화산분출물 중에서 공기구멍이 많고 검정, 갈색, 빨강 등의 암색이며 지름이 4mm 이상인 암석덩어리를 말한다.

HONGIK UNIVERSITY

가 조형화 된다.

이는 돌이라는 소재를 통해 내면의 또 다른 심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인체라는 소재와 결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돌과 인체의 형상이 하나로 결합된 허민자의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함으로 동양적이고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난다. “인체의 형태적 표현과 정서적 표현을 위해 화산암의 형상을 쌓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면서 작업해 나갔다. 전체적으로 돌의 질감을 기조로 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운 동양적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인체 표현은 절제되고 간결하지만 돌의 형상에 녹아들어 하나가 된다. 이는 돌의 형상을 인체와 분리하여, 두 소재를 재구성하는 연구자의 작품과는 다른 점이다. 그 이유는 제주의 돌을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제주의 돌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은 제주사람들의 척박하고 고된 삶의 원인이자 무거운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그 돌을 몸에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내면에 초점을 가진다. 따라서 작품에서 돌과 인간은 상호관계 속에서 대립되거나 공존하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를 배경으로 제주 화산암을 이용한 심상 표현에 있어서, 돌이 가진 다의적인 상징적 의미들을 작품에 대입한다.

돌이 가진 보편적인 상징성과 더불어 제주의 문화적 상징성을 차용함에 있어서, ‘돌’이 상징하는 의미는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재해석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구자의 작품 구조 속에서 주관적인 심상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돌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돌은 ‘현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소재로 차용된다. 자연과 물질을 대표하는 소재 중의 하나인 돌은 작품의

HONGIK UNIVERSITY

또 다른 소재인 '인체'와 대비되어 인간의 외면에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속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대지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돌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땅, '현실의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물리적, 육체적 요소로 인해 현실적인 무게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 때에 '돌'은 차갑고 무거운 현실에 의한 '삶의 무게'와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이는 돌이 가지는 무거운 중량에서 비롯된 요소와 제주의 척박한 환경과 고된 삶의 원인이 되는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다.

더불어 벗어날 수 없는 현실과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내면의 현실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고립된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환경을 대변하는 제주 화산암에서 파생된 이미지이다.

또한 생존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돌의 역사적 배경과 제주의 문화 속에서 거친 해풍(海風)을 막는 용도로 돌이 다방면에 걸쳐 이용된 것을 배경으로, 작품 속에서 '돌'은 인간이 입고 있는 '옷'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삶의 도구로서 필수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육체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처럼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는 인체의 형상과 결합하여 재구성됨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HONGIK UNIVERSITY

2)인체의 상징적 표현

인체를 해체하거나 변형하고, 도자기라는 물성과 개념을 이용함으로서 연구자와 유사한 소재와 표현을 가지는 김준[26] 작가의 작품 연구를 통해 본 작업에서 인체라는 소재가 가지는 표현의 차이와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연구자의 인체 표현형식을 서술한다.

(그림 10) 김준, <fragile-dragon> , digital print , 2010

(그림 11) 김준,
<drunken-moet chando> ,
digital print, 2011

김준은 인체가 가지는 상징성을 가지고 인체의 단편(斷片)을 문신(文身)의 대상, 캔버스로 이용한다.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어떠한 각인(刻印)된 이미지를 문신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의문

26) 김 준(Joon Kim, 1966~)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현재 공주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3D컴퓨터그래픽으로 문신을 새겨넣는 디지털 사진으로 광주 비엔날레,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 등에 초대돼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HONGIK UNIVERSITY

을 던진다. 여기서 인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나타내는 데, 이는 연구자가 인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한 측면과 맞닿아있다. 그것은 작품 속의 '인체'가 인간의 '몸'이 가지는 물질적, 육체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고유성, 그 정신이 하나로 합쳐진 인간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김 준의 작품에서 인체에 새겨진 문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 새겨진 상처가 아니라 의식에 각인된 인간의 또 다른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다음은 작가의 작품 평론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김준은 인간의 육체를 인간과 세계,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인간의 육체야말로 정신에 대하여 이원적(二元的)으로 존재하는 그릇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 인간과 세계, 안과 밖 등 두 세계의 사이의 매개향(媒介向)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27]

외부의 전통이나 관습, 사회나 문화적 유행에 의해 각인된 수동적인 정신의 표상을 인체와 문신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인간의 육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의식의 측면을 강조한다. 작품 속에서 인체는 머리가 삭제된 체 몸통과 사지만이 절단되고 해체되어 안이 비워진 형태로 나타낸다. 작가의 작품에서 인체의 해체적 표현은 깨지고 부서지며 변형된 현대인의 정신을 의미한다.

"김준의 작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신체 이미지는 초기에 완벽한 비율로 재현된 인체의 표현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왜곡된 형태를 취한다. 신체는 기형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편(陶片) 조각으로 깨지고 잘려나가면서 완전함과 영원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절단, 해체되는 단계에 이른다."[28]

김준은 인간의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서 도자기의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한다. 외부의 힘에 의해 도편(陶片)으로 깨지는 도자의 물성과 관념은 그

---

27) [김준-예술자료원] , 출처 http://da-arts.knaa.or.kr/blog/kimjoon.do
28) 황정인 독립큐레이터 , 『월간 포토넷 』, 2010년 6월호 , p.128

HONGIK UNIVERSITY

의 작품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도자기라는 개념과 상징성만을 차용하는 작가의 작품은 굳이 그 표현재료가 흙을 이용한 도자로 제작되지 않아도 되는 당위성을 가진다. 실제 김 준 작가의 작품은 3D기술을 이용한 그래픽미디어만으로 표현된다.

인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도자라는 매체가 가지는 물성과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는 도자조형 연구에 있어 작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자는 도자 조형의 흙에서 출발하는 질료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작품을 형성한다. 흙으로 빚어진 도자(陶瓷)는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과 맞물린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또 다른 소재인 '돌'도 마찬가지로 흙으로부터 생성되고 흙으로 풍화된다. '도자'라는 재료로 표현된 '인체'와 '돌', 이 셋의 근원이 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은 작품 형성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흙으로 빚어져 불로 완성된 도자의 물성이 영원에 가까운 불변성을 가지듯이 반대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에 정신의 영원성을 꾀한다.

김준이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물질적이고 수동적인 정신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자는 인간의 능동적인 주체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인체를 소재로 한다. 내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념(意念)'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의념이란 '의지'와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주체적인 정신적 활동이다. 그것은 행위를 일으키는 순수한 에너지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다. 이로서 표현되는 인체는 형태적 표현보다는 움직임과 행위에 집중된다. 중력에서 벗어난 듯한 구도와 강조된 손과 발의 표현은 '힘'과 '의지'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에 인체를 분절(分節)시키고 부분적으로 생략 또는 삭제하는 표현방법으로 인간의

HONGIK UNIVERSITY

주체적 의지를 반영하는 주제를 강조하는 한편, 시각적 조형성과 이미지의 여백(餘白)을 의도한다.

인체란 굉장히 친숙하게 각인된 이미지이다. 인체의 사지(四肢), 팔과 다리만 가지고도 나머지 몸의 자세를 예측할 수 있다. 작품에서 주제와 내용에 불필요한 인체의 요소들을 삭제시킴으로서 조형적 긴장감과 함께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과감히 생략된 인체표현은 인간의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손과 발, 얼굴 표정을 중심으로 이루진다. 따라서 연구자의 인체 표현방식은 해체와 절단에 의한 변형이라기보다는 분절(分節)과 생략, 소거(消去)에 해당한다. 인간의 주체성이란 능동적 실천의지이자 정신적인 영역으로, 행위를 통해 일부 실현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행위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작품을 구성하는 인체는 인간내면의 정신활동을 반영한다.

3. 작품설명

문학에서의 상징적 표현이 문맥(文脈)과 시적(詩的) 정황에 의해 새롭게 파악되듯이 조형예술 또한 작품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형성한다. 앞서 분석한 본 연구 작품의 상징체계와 구조를 작품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HONGIK UNIVERSITY

작품1. <등대지기>

30 × 30 × 60 / 20 × 20 × 15 (cm)
석기토 , 산화소성 1250c / 제주화산암 , 2012

깊은 밤 바다, 홀로 우뚝 솟은 작은 돌섬과 그 위에 작은 등대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茫茫大海) 속, 홀로 항해하는 인간을 지탱하는 신념(信念)을 떠올리게 했다.

내면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사유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념을 지켜가는 주체적 인간의 모습을 등대지기라는 상징적 구조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HONGIK UNIVERSITY

이 때에 작품의 의미구조 속에서 돌은 다음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바다로 둘러쌓여 고립된 돌섬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제주 화산암은 작품 속에서 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내면의 공간을 지시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그리고 그 돌은 인간을 지탱하는 다리부분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구도가 바다에 우뚝 솟은 바위섬을 형상화한다. 이에 인체는 몸통은 생략되고 행위가 드러나는 손과 발을 중심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오롯이 자신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인간의 형상을 손과 발, 얼굴표정만으로 담아내어 관객의 상상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시선의 분산을 막고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실의 삶과 시간을 반영하는 주름과 거친 손의 마디 등을 통해 인체를 표현하였으며, 흙의 질감과 함께 인체의 세밀한 표현을 위해 재(灰)와 투명유를 엷게 분무하여 시유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을 지탱하고 중심을 이루는 다리부분은 제주 화산암을 가공하여 결합하였다. 제주의 천연의 재료를 직접 가공함으로서 제주의 이미지와 돌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좌대(座臺)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검은 밤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품의 하부부분은 판 작업을 통해 사각으로 성형한 후, 천목유와 함께 유리조각을 1250도로 소성하여 표면의 유리질 층을 두껍게 하였다.

지나온 삶의 발걸음과 방향성을 상징하는 고무신은 백색화장토를 칠한 후, 부분적으로 긁어내 시간성이 담긴 낡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배의 이미지를 담은 고무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등대지기의 형상을 통해 현실의 삶 한가운데 존재하는 인간 내면의 주체적 사유와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2. <生覺>

80 × 60 × 100 (cm)
석기토 , 산화소성 1250c , 라쿠소성 / 제주화산암 , 2012

바다로 둘러 쌓이고 농업에 불리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해녀(海女)라는 독특한 직업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해녀의 삶의 이면(裏面)에는 오랜 잠수와 수압에 의한 잠수병의 고통과 죽음을 동반하는 예측할 수 없는 해상사고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제주의 해녀들은 삶을 위해 늙은 나이에도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는 고통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연구자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본 작품은 삶과 죽음, 고통이 존재하는 바다를 바라보는 늙은 해녀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연구자의 마음 속 심상을 재생시킴으로서 생(生)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고자 하였다.

무거운 돌로 표현된 잠수복은 삶의 도구이자 삶을 속박하는 차갑고 무거

HONGIK UNIVERSITY

운 현실을 상징한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은 제주해녀의 손 모양과 얼굴표정을 통해 또 다른 내면을 드러낸다. 돌을 머리에 인 무거운 머리를 가볍게 받친 손과 편안한 미소로 생각에 잠긴 해녀의 모습은 삶의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생(生)의 의미를 다시금 재생시킨다. 삶의 고통을 넘어서, 살아있음에 대한 고뇌가 아닌 관조(觀照)로서 깨닫게 되는 생의 의미를 형상화한다. 무거운 현실 앞에 번뇌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제주 해녀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이에 인체의 표현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직접 흙으로 대상의 원형을 만들어, 표정을 자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에 석고기법을 통한 가압성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손과 얼굴은 표현의 세밀함을 살리기 위해 밝은 소지의 흙을 조합하여 1250도 산화소성을 하였다. 그리고 돌의 이미지를 결합한 잠수복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화산암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라쿠 소성기법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다리부분과 걸터앉은 바위부분은 제주 현무암을 직접 가공하여 결합하였다. 이는 천연의 자연석을 작품에 대입함으로서 자연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다의적인 의미로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과 그 위에 붙어있는 소라들은 생(生)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화산암은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척박한 현실과 고된 삶의 무게를 상징하면서도, 세찬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삶의 도구이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의적인 상징성들이 모여 현실의 다양한 속성들을 함축하는 소재로서 돌은 작품에 차용되어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HONGIK UNIVERSITY

작품3. <반가사유 半跏思惟>

70 × 50 × 100 (cm)
석기토 , 산화소성 1250c , 라쿠소성 / 제주화산암 , 2013

작품에서 표현된 돌로 된 잠수복은 앞서 작품2.<生覺>에 드러난 상징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 너머의 '도솔천(兜率天)'이라는 이상세계에 존재하며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 사유하는 미륵보살을 표현한 반가사유상의 상징적 의미를 차용함으로서 작품의 내용은 다른 주제를 드러낸다.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존하는 인간 스스로 이루어져야하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무거운 돌로 된 잠수복을 입은 제주해녀를 반가사유상에 대입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4. <섬지기>

70 × 70 × 160 (cm)
석기토 , 산화소성 1250c , 2013

삶은 고통의 바다이다.

작품제목 섬지기는 삶의 고통과 무게에 대항(對抗)하는 고독한 인간의 치열한 실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풀어낸다.

생물학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인 측면으로도, 우리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존재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

HONGIK UNIVERSITY

결코 인간에게 결코 호의(好意)스럽지 않은 척박하고 무거운 현실을 상징하는 돌섬.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지시한다.

인간의 정신은 육신 안에 존재하듯이 내면의 세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즉, 작품 속의 돌섬의 상징적 의미는 한 인간이 존재하는 물리적, 정신적 세계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 차가운 현실 위에 홀로 고여 버티는 한쪽다리는 삶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작품은 무거운 돌덩이를 육신에 걸치고 움켜짐으로 연결된 인체가 종국(終局)에는 가슴부근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도 증명되지도 않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움켜지고 살아내는, 인간의 그 순수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인체는 사지(四肢)와 얼굴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팔과 다리에 조형적 긴장감을 가져옴으로써, 움켜진 손과 발에 드러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팔과 다리, 손 모양과 얼굴의 표정만으로도 한 인물의 전체적 동선과 함께 내면적 상태를 충분히 담아 낼 수 있음을 주목한다.

제작기법은 코일링과 손 성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작품에 표현되는 제주 화산암의 질감은 현무암의 기공(氣孔)을 인위로 조각한 후, 다양하게 발색하는 소지(素地)들을 물에 개어 부분적으로 분장하였다. 이후, 재유(灰釉)계통의 유약들을 부분적으로 시유하여 돌의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5. <화인(火印)>

40 × 60 × 90 (cm)
석기토 , 환원소성 1250c , 2014

본 작품은 화산암의 일종인 용암수형(熔岩樹型)이라는 돌을 소재로 하고 있다. 용암수형은 용암이 흘러 나무를 감싸고 냉각되는 과정에서 나무의 줄기가 그 안에서 열기에 의해 타버리고 그 나무의 형상이 큰 구멍으로 남아있는 형태의 돌을 말한다.

연구자는 그 형태의 조형적 특성보다는 용암수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무엇인가 상실됨으로서 각인된 공간에 집중하

HONGIK UNIVERSITY

여, 인간 내면에 새겨진 상실과 상처에 대한 주제를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은 연구자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인체가 몸통만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가 돌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작품구조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는 사지(四肢)가 소거(消去)된 상태로 피동적(被動的)으로 새겨진 인간 내면의 상실된 공간을 상징한다.

제작방법은 인체의 원형을 성형하여 석고몰드를 제작한 후, 가압성형을 통해 일차적인 형태를 만든 후, 전체적으로 화산암의 표면 질감을 조각하였다.

소성 방법으로는 유약처리를 하지 않고 흙과 불에 의한 소성만으로 작품을 완성하기위해 석기질의 점토로 기물을 성형한 후, 겉면에 화도(火度)가 낮은 제주토(濟州土)를 분장하여 1250도 환원 소성하였다. 이는 제주 흙의 특성 상, 1200도 이상에서 기물의 형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철분에 의해 고온의 화도에서 광택이 발생하며 독특한 발색(發色)을 내기 때문이다.

또한 용암수형의 형성과정을 상징적으로 차용하기 위해, 구멍이 뚫린 부분에 자연재를 분무하고 숯을 넣어 함께 소성하였다.

인간의 내면에 누군가의 존재가 상실됨으로서 피동적으로 생기는 공간을 용암수형이라는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6. <시간의 무게>

50 × 35 × 120 (cm)
석기토 , 환원소성 1250c , 2014

돌탑은 인간의 희망이 담겨져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이면(裏面)에는 고통스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반증(反證)인지도 모른다.

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현실의 무게이자 삶의 고통을 의미하는 동시에 돌탑의 상징적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인간이 가지는 이상과 희망에 대한 상징성을 이중적으로 나타낸다.

HONGIK UNIVERSITY

또한 돌이 쌓여져 가는 과정을 통해 시간성을 드러내는 본 작품은 삶의 고통과 희망의 양면성을 가진 시간의 무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도하는 손 모양과 돌탑의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실의 무게를 넘어 희망과 이상의 무게마저 스스로 감내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로서 모든 삶-시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외줄타기 같은 삶의 시간들과 그 무게가 조금은 가볍길 바라는 연구자의 심상을 담아 무게 중심을 벗어난 구성으로 조형적 긴장감과 함께 돌들이 무게에 비해 가볍게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제작방법은 연구자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부분들을 따로 소성 한 후 결합하였다.

돌의 질감을 표현하기위해 내화갑을 이용한 소성방법으로, 숯과 조개껍질, 소금을 사용하여 소성의 요변(窯變)을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색감을 얻기 위해 각 부분마다 다른 점토를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7. <진흙 속에 핀 별>

25 × 15 × 45 (cm)
자기토 , 환원소성 1250c / 제주화산암 , 2015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어떠한 진리나 이상으로 표현되곤 한다. 작품제목 속의 '별'은 인간이 쫓는 이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별'은 하나의 '돌'이다. '돌'은 이 땅-지구를 이루는 광물 혹은 암석의 일부분이며, 저 밤하늘의 별도 또 다른 암석의 일종이다. 결국 작품 속에서 돌이라는 하나의 소재 안에 담겨진 의미는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HONGIK UNIVERSITY

인간들은 진리나 이상을 찾기 위해 현실 밖의 외부나 혹은 내면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며, 현실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작품을 구상하였다.

흙이 고온과 고압으로 뭉쳐져 생기는 돌.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삶의 본질을 흙과 돌, 별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작품에서 '돌=별'을 쥔 손은 현실의 삶을 담고자, 흙 묻은 주름과 굳은 손 마디들로 표현하였다.

제작방법은 원형을 만든 후에 석고몰드에 의한 가압성형으로, 백색 자기토를 이용하여 성형한 후, 흙 묻은 주름진 손을 표현하고자 해당 부위에 옹기토를 물에 개어 분장하고 소금물을 발라 1250도 환원 소성하였다.

손톱은 이상과 진리를 상징하는 색인 수금(水金)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작품 속의 돌은 제주 현무암을 가공하여 결합하였다.

HONGIK UNIVERSITY

작품8. <이름없는 새>

280 × 100 × 190 (cm)
청자토 , 환원소성 1250c / 석기토 , 산화소성1250c , 2015

'이름'이란 현실에서 만들어진 관념이다.

인간의 머리 형상을 한 '돌'은 자유를 속박하는 물질세계와 현실의 무거운 관념들을 상징한다. 이와 대립되는 팔다리로 구성된 새의 형상은 몸통과 머리를 없앰으로서 육체적인 욕념과 정신적인 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자유의지로의 인간의 갈구를 표현하고 있다.

돌의 형태는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하며 석기질의 점토로 성형한 후, 표면을 조각하여 돌의 질감을 나타내었다

인체표현은 손과 발, 근육과 힘줄을 강조함으로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체의 비례와 세밀한 표현을 위해 흙으로 원

HONGIK UNIVERSITY

형을 제작한 후 석고몰드를 제작하여 청자토로 가압성형을 하였다.

작품의 크기와 구조 상, 각도와 위치를 고려하여 팔과 다리의 각 부분을 따로 성형하였으며, 소성(燒成) 후에 금속파이프를 기물의 접합부위에 결합하여 설치하였다. 푸른빛의 색감은 바람과 하늘, 자유의 이미지를 담아 청자유를 분무시유 하여 1250도 환원 소성하였다.

HONGIK UNIVERSITY

Ⅴ. 결 론

본 연구자는 예술의 상징적 표현 행위를 통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내면을 조형화하고 있다. 예술적 표현형식으로서의 상징적 표현이 가지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예술가가 차용하는 대상의 상징적 이미지는 문화적 배경에서 경험된 공통된 정서적 느낌이나 의미에서 출발하여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본 작품의 소재가 되는 돌의 상징적 이미지와 그 형성배경을 연구자의 지역적 배경이 되었던 제주도의 돌 문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상징적 이미지는 작품의 구조 속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예술적 의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다. 선례작가를 비롯한 본 연구자의 작품 분석을 통해, 돌과 인체를 결합한 상징적 구조의 의미발생부터 형성까지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작품이 도자조형으로서 당위성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태토와 유약 등 소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도예라는 표현형식과 그 안에 담고자 하는 주제의 연관성 및 타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도자라는 물성과 개념에 대한 연구가 전제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작품에서 다의적인 의미로 재창조되는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서 작품의 상징구조를 체계화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고찰한 제주 화산암의 상징적 이미지의 형성배경이 제주문화라는 한정된 범위에 국한된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예술의 표현방식은 그 독창적 문화를 하나의 예술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HONGIK UNIVERSITY

그러나 상징적 표현에 있어서 그 내재적인 의미가 중요한 소통의 요소가 되는 본 연구자의 작품은 제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소통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 체계화된 상징적 의미 구조는 작품의 이해와 소통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과 소재의 상징적 연관성과 당위성을 모색하여 폭 넓은 소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되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작품의 상징적 구조를 모색할 것이다.

HONGIK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수잔 K.랭거(S.K.LANGER) , 이승훈 역 ,『예술이란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 1982

Roger Caillois, 이경자 역 ,『일반미학』, 서울: 동문선 , 1999

박정근 외 ,『돌의 美의 미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다른세상 , 2000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김영은 역 ,『시지프스의 신화』, 서울: 덕우출판사 , 1991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서울: 파피루스 , 2003

현충식 외 제주역사연구회 ,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 , 1993

강태희 외 , 『미술·진리·과학』, 서울: 재원 미술총서 , 1996

2. 학위논문

김성은 (2002) 『제주도 돌(石) 文化와 造形디자인에관한 硏究 :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관용(2002) 『제주도 화산암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월간 포토넷 』, 2010 , 6월호

HONGIK UNIVERSITY

4. 기타

문화컨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고인돌]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45118&cid=49373&categoryId=49373
[김준-예술자료원]
URL:http://da-arts.knaa.or.kr/blog/kimjoon.do

그 림 목 록

(그림 1) 강세황, <괴석도>,1712
(그림 2) 오귀스트 로댕, <돌을 지고 있는 여인상>, 1880-1881, 파리로댕 박물관 소장
(그림 3)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신당(神堂) , <생개납 돈짓당>
(그림 4) 제주의 초가(草家)와 돌담
(그림 5)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옛 포구
(그림 6) 용수리 방사탑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8호
(그림 7) 산담과 동자석 , 남원읍 의귀리의 김만일 묘역
(그림 8) 허민자, <Two People> ,석기점토, 1996
(그림 9) 허민자, <기쁨으로 찬미하세> ,조합토, 2009
(그림 10) 김 준, <fragile-dragon> , digital print , 2010
(그림 11) 김 준, <drunken-moet chando> , digital print, 2011

HONGIK UNIVERSITY

ABSTRACTS

A Study of Ceramic Sculptures Combined by Symbolic Images of Stones and Physical Structure of a Human Body - Mainly Based on The Culture of Stone in Jeju Island -

LEE, Ho-chul
Major in Ceramics
Graduated School of Hong-ik University

Human kinds are cultural beings. All forms of arts that expressed by human beings are under influence of different cultural circumstances. The study searches the formation system of symbolic images for objects,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symbolic expression in arts.

'Symbolic expression', one of the expression forms in arts, reveals nonobjective thoughts through a specific target. And this type of expression borrows the immanent meaning, namely symbolic meaning

HONGIK UNIVERSITY

of certain objects. A Swiss psychologist Carl Gustav Jung says that "Art is symbol. It is expressed through symbols that are from artists' thoughts and experiences." Symbolism forms by an artist's arbitrary decisions and personal experiences within the semantic structure and system of applied works of art.

The researcher takes 'stone,' the root of JeJu culture, as his work material and this especial "stone" culture of JeJu Island is at the center of the researcher's work-formation background. The contents of study is based on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s in JeJu Island where he had been his regional background for many years.

Stone culture in JeJu Island derives different symbolic images compared with other areas in Korea. The fact that JeJu is an isolated island covered with hard volcano rocks and people who lived exhausted lives there make unique history and local sentiments make its only symbolic images.

So, JeJu 'stones' reflect poor and heavy reality. It is a survival tool to protect JeJu people from difficult environments around, it is also an object of devotion at the same time.

The life of JeJu people who have been shared all sorts of emotions with stones show great awe to nature and strong will of existences beyond human subjecthood or survival. The tough human nature of JeJu people motivated the researcher to study and express human beings. In the process of visualize an independent ego with spirituality, the JeJu 'stone' and 'human body' are taken as symbols in the researcher's works.

HONGIK UNIVERSITY

Therefore, the study considers polysemantic meanings and symbols of 'stone' through JeJu volcano rocks and culture in order to analyze the researcher's works. The research explains the symbol structure that re-constituted the meaning of 'stone' and 'body in works, adds relevance to expression methods, and reviews the correlation between external expression methods and internal motives. The researcher tries to show an original visual exposing by systemizing the form of symbolic images which recreated by private intentions.

The contents of the body are as follows.

Chapter II researches how the symbolic images of 'stone' are formated based on meanings and principles of symbolic expression as one of the artistic expression forms. And the new symbolic images of JeJu volcano rocks are suggested with universal symbols of 'stone' in general human culture in history.

Chapter III describes inner spiritual aspects in human nature, theoretical background of expression methods, and the researcher's expressive motivations. In this chapter, 'stone' and 'body' are classified as the two most important materials in works: The researcher compares and analyzes his works through many precedent art works which used each material by artistic purposes in order to systemize meaning structures of reconstituted symbolic images .

HONGIK UNIVERSITY

The researcher shapes abstract mind of human beings through symbolical expression behaviors of arts. In terms of symbolic expression, its implicit meaning becomes very important way of communication. The study considers the symbolic images and formation background of 'stone,' the key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in works, applied to JeJu Island's stone culture. And the analysis helps to systemize forming process of the symbol structure of 'stone' and 'body' combination, also suggests symbolic images of 'stone' that recreate in multiple meanings.

HONGIK UNIVERSITY